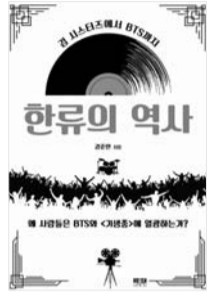


왜 한국은 '대중문화 공화국' 인가?

한류의 역사

강준만 지음

1991년 방영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인기는 대단했다. 최고 시청률 64.9%, 평균 시청률이 59.6%였다. 김수현 작가 특유의 재치있는 대사는 장안의 화제였다. 무엇보다 상식과 사회통념마저 깨뜨려버리는 언어는 생생하고 역동적이었다. 추상을 걷어버리고 구체를 표현한 언어는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안겨주었다.



비평가들은 1997년 중국에 수출된 '사랑이 뭐길래'를 한류의 출발점으로 본다.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둔데다 '한류'라는 작명을 견인한 기여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한국 최초 트렌디 드라마인 '질투'를 한류의 시초로 보는 시각도 있다. 1992년 방영된 '질투'는 스토리는 진부하지만 감각적이었다.

오늘의 한국을 일컫는 말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대중문화 공화국'이라는 말은 한류 열풍의 현주소를 말한다.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0.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0.7%의 반란', '단군 이래 최대 이벤트'로 부르기도 한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20년까지 한류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전북대 신문

방송학과 강준만 교수가 발간한 '한류의 역사'는 한류의 DNA의 비밀을 풀어낸다. 왜 사람들은 BTS와 '기생충'에 열광하는지, 저자는 대중문화 현상 이면을 들여다본다.

저자에 따르면 '최초의 한류 아이돌'은 김 시스터즈였다. 이들은 미국 최고 버라이어티쇼였던 CBS '애드 셸리번 쇼'에 '악기를 20가지나 연주할 줄 아는 소녀들'로 소개되며 인기를 끌었다. 가수이자 각가인 김혜송과 이난영의 두 딸, 이난영의 오빠인 작곡가 이봉룡의 딸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대중문화 공화국'이 된 배경은 무엇일까. 좁고 자원은 없는데다 다 식민통치라는 아픔까지 겪은 상황에서 살길은 근면과 경쟁뿐이었다. '전쟁하듯' 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소용돌이' 문화를 낳았다. 혹자는 이를 역동성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하는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중문화였다.

한류의 출발을 1945년으로 보는 것은 한류의 현대적 근원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 주둔과 함께 '양키이즘'이 유입됐다. 미군 기지촌 문화는 사회 전반으로 파급돼 촉박함을 낳았다. 또한 1957년 AFKN-TV가 개국하면서 미국 대중문화가 급격히 유입됐다. 봉준호 감독이 열 살부터 AFKN으로 영화를 봤다고 말한 대목은 시사적이다.

1960년대 젊은이들은 '할리우드 영화'에 열광했다. '할리우드 키드'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다.



2017년 미애너하임에서 열린 '2017년 BTS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3 윈스 투어'는 전석을 매진시키며 다가올 'BTS 열풍'을 예고했다. <인물과사상사 제공>

1970년대는 통키타, 블루진, 생맥주로 상징되는 청년문화가 싹트며 1980년대 가요계는 조용필의 시대라고 할 만큼, 한 시대를 풍미했다.

1990년대는 언급한대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질투'가 한류의 기원이 될 만큼 인기를 누렸다.

그리고 1992년은 훗날 '현대 K-pop의 시조'라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H.O.T., SES, 신화 등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소위 말하는 '1세대 아이돌 그룹'이다.

2003년 영화 '겨울연가'는 일본에 '온사

마' 열풍을 낳았고 일본 기업은 '배용준 마케팅'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 영화 1000만 시대가 도래했다. 2003년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로 시작된 1천만 관객 돌파는 이후 '괴물', '해운대',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으로 이어졌다.

2010년대는 '소녀시대'의 전성시대 해도 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10년대 전후로는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 불었다. '슈퍼스타K', '위대한 탄생', '기적의 오디션' 등이 붐물처럼 터져 나왔다.

<인물과사상사·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세로토닌=지독한 권태와 무력감에 인생을 좁막하고 '자발적 실종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십대 남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느 날 돌연 직장도 집, 인간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스스로 고립과 고독에 처하기를 선택한 주인공은 지독한 우울감을 느끼고 일명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작용에 관여하는 항우울제 '캡토릭스'를 복용하지만, 갈수록 과거의 추억에 함몰되어간다. <문학동네·1만5500원>



▲박원순 죽이기=차기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저자는 차기 대선 후보에서 누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더민주당' 세력판도를 살펴보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중 핵심이 누구이며, 앞으로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중원문화·1만5000원>



▲이토록 재미난 집콕 독서=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좀처럼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쾌한 초대장이자. 저자는 인문학이나 고전이 따분하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걸 알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재미나고 즐거운지 알고자 한다. 인문서, 고전 등 스물여덟 권의 책을 특유의 엉뚱하고 자유로운

시선으로 읽어내며, '책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길을 보여준다. <갈매나무·1만4000원>

▲어쩌다 정신과 의사=팟캐스트 '뇌부자들'을 탄생시킨 정신과 의사 김지용의 이야기다. 저자는 그동안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미처 꺼내놓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공부는 끝났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청년이 정신과 의사가 되기까지 겪은 이야기, 멀고도 가까운,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 상담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 등을 담았다. <심삼·1만6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오늘도 기다립니다=혼자 사는 할아버지의 일상과 손녀에 대한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렸다. 아버지와 딸의 실제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책을 만든 작가는 테이블 가득 손녀를 위한 장난감과 인형 뽑기에 집중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짝짝한 표정으로 실 틈 없이 재잘거리다가도 종종 토라져 할아버지를 찔끔매게 하는 손녀의 모습 등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했다. <한올림어린이·1만3000원>



▲코라와 악어공주=코라공주와 악어의 특별한 하루를 담았다. 악어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허겁지겁 공주의 옷을 입고는 꼬리를 뒤로 감춘 채 공주처럼 변신해 코라 공주를 대신해 부지런히 할 일을 해낸다. 악어 덕분에 성 밖 구경을 하게 된 코라공주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행복한 일인지 깨닫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다. <문학과지성사·1만5000원>



▲신비한 익룡사전=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익룡에 관한 최초의 과학 교양서다. 2018년 '신비한 공룡 사전'에 이어 2년 만에 나온 이 책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익룡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총 100종류의 다양한 생김새와 생태를 소개하며 지구상에 익룡이 언제 나타났는지, 공룡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늘을 날았는지, 어떤 형태로 진화했는지, 왜 멸종했는지 등을 다룬다. <씨드북·3만3000원>



심심한 일상을 열심히 쓰는 것, 그게 에세이다

심심과 열심

김신희 지음

요즘 서점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코너가 에세이 분야다. 예전에도 에세이 분야의 인기는 높았지만 요즘에는 그 권수가 부쩍 늘었다.

소설가 등 문학 관련 종사자나 유명인들의 에세이와 함께 요즘엔 '보통 사람'들이 펴낸 책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 카카오프렌즈 등의 공모를 통해 책을 펴내기도 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자기 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강좌 등도 많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책을 낼 수 있다.



전업에세이스트로 활동하는 김신희 작가의 '심심과 열심'은 나만의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에세이 쓰며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다. 십여 년 동안 TV 코미디 작가로 일했던 저자는 자신에게 위로를 줬던 일본만화 '보노보노' 속 주인공들의 대화를 소재로 펴낸 책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를 펴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13년 동안 1년에 한 권 꼴로 책을 출간하며 누구보다 규칙적이고 성실한 글쓰기를 이어오고 있다.

'아무튼, 여름' 등의 에세이집을 통해 독

자의 공감을 이끌어 낸 저자는 "심심한 일상을 열심히 쓰는 것, 그게 바로 에세이다"라 생각하고 "나를 알고 내 감정을 파악하며 쓰는 글은 모두를 지키는 글쓰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작가의 말처럼 '심심과 열심'이라는 제목에는 긴 세월 단단해진 그의 글쓰기 신조와 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나는 이렇게 쓴다", '근로자입니다, 또 고용주이고요', '에세이는 사소함을 이야기하는 글', '가장 빛나는 글감은 사람' 등 4개의 장으로 나뉜 책은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글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글 쓰며 사는 삶은 어떤건가요?"라고 질문을 던져온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답이기도 하다.

"그래, 이런 게 에세이지. 사소해서 괜찮

은 이야기. 사는 거 별게 없으니 오늘도 어떻게든 버티 보자, 하는 이야기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딱히 맘에 들어서 이라고 사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하고 중얼거려서는 목소리들." 저자는 '일기는 초고가 된다'는 글에서 사소한 글쓰기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글쓰기에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것을 너무 강요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다고 조언하고, 첫문장보다는 끝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내고 기쁜 일을 나눌 때마다 아파하는 이는 없을지 말들을 헤아리는 일의 중요성 등 글쓰기 뿐 아니라, 일상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차분히 풀어낸다.

저자는 글쓰기에 대해 뭔가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일단 시작해 볼 것을 권한다. <민음사·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